『대순사상논총』 제58집 (2026), pp.1~28
https://doi.org/10.25050/jdaos.2026.58.0.1

서구 영성 담론의 『도덕경』 전유와 개신교 텍스트주의

박 범 석 *

■ 국문요약

본 연구는 서구 영성 담론이 『도덕경(道德經)』을 수용하고 해석해 온 방식을 개신교 텍스트주의의 관점에서 개념화하고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서구에서 널리 유통된 번역 및 해설서는 『도덕경』을 시공간을 초월한 순수 철학의 텍스트로 표상해 왔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역사적 도교를 구성해 온 의례, 사당, 교단, 신선술 등 실천적이고 공동체적인 차원은 후대의 미신적 부가물로 간주되어 배제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선택적 전유의 배경에 종교개혁에서 유래한 성서 중심주의와 의례 전통의 상대화라는 신학적 구도가 세속화된 형태로 잠재해 있다고 보고 이를 개신교 텍스트주의로 명명한다. 방법론적으로는 오리엔탈리즘 비판과 담론 전통의 개념을 결합하여 서구 영성 담론이 동아시아 종교 전통을 텍스트와 실천으로 이분화한 뒤 전자만을 진정한 것으로 승인하는 인식론적 작동 방식을 규명한다. 나아가 이러한 절차가 대중 출판물에만 한정되지 않고 학술적 정전 편찬에서도 부분적으로 재생산되며 개항기 한국에서 서구 선교사들이 무속을 미신으로 보고 유교와 불교를 경전화된 종교로 위계화한 과정과 구조적으로 상응함을 비교론적으로 논증한다. 이를 통해 도교의 탈맥락적 전유가 종교

* 서울대학교 강사, E-mail: vinetar@naver.com

와 세속의 경계를 재구성하는 권력 행위임을 밝히고 텍스트 중심주의를 넘어 종교를 담론 전통으로 이해할 것을 제안한다.

주제어 : 도덕경, 도교, 개신교 텍스트주의, 오리엔탈리즘, 담론 전통, 세속적 영성

Ⅰ. 서론
Ⅱ. 개신교 텍스트주의와 오리엔탈리즘
Ⅲ. 성서화된『도덕경』해석과 도교의 주변화
Ⅳ. 개신교적 프레임의 전지구적 재생
Ⅴ. 결론

Ⅰ. 서론

20세기 후반 이후 서구 서점가에서『도덕경』은 성서 다음으로 많이 번역된 텍스트로 알려질 만큼 폭넓게 유통되어 왔다. 이러한 번역과 해설 산업이 재현하는 도교 이해는 정일도(正一道)·전진도(全眞道)와 같은 교단, 재초(齋醮) 의례, 부적과 내단 수련, 신선 신앙과 사당 공동체를 포괄하는 중국사의 역사적 종교 전통과는 상당한 거리를 둔다. 서구 영성 이론가들이 말하는 도(道)는 대체로 교단과 성직자가 없는 순수 철학 또는 삶의 지혜로 재구성되며, 도교의 종교적이고 의례적인 차원은 문헌학이나 실천 차원 모두에서 주변화되거나 배제된다. 이는 단순한 오해나 축약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진정한 종교'로 간주할 것인가를 가르는 특정한 문화적 기준의 작동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텍스트를 종교의 본질로, 의례와 공동체를 우연적 형식으로 간주하는 판단 규칙이 작동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그러한 판단의 유래를 종교 개혁의 성서 중심주의에서 찾고, 이 규칙이 오늘날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 않은'(SBNR: spiritual but not religious)[1] 담론 속에서 세속

1) Robert C. Fuller, *Spiritual, But Not Religious: Understanding Unchurched America*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화된 방식으로 지속된다고 본다. 1960~1970년대 반문화 운동 이후 형성된 영성 시장에서 종교 전통은 제도적 소속이나 공동체적 실천이 아니라 개인이 선택적으로 소비하는 상징 자원으로 재편되었고,[2] 『도덕경』은 짧은 분량, 잠언적 문체, 인격신에 관한 언급의 부재로 인해 이 시장에서 특히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였다. 최근에는 명상 애플리케이션의 도덕경 콘텐츠를 통해 텍스트가 의례와 공동체로부터 분리되어 소비되는 경향이 일상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시장 조건은 개별 저자의 의도를 넘어 도교 서술의 상업적 성공을 규정하는 기준으로 기능한다.

본 연구의 논의는 세 가지 측면으로 구성된다. 첫째, 서구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스티븐 미첼, 웨인 다이어, 어슐러 르 귄의 『도덕경』 번역 및 해설서를 대상으로 서문과 해설의 수사와 논리 구조를 분석하여, 이들이 번역을 표방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영적 재해석 또는 각색을 수행한다는 점을 밝힌다. 둘째, 의례·교단·신선 숭배·민간신앙으로 이루어진 역사적 도교를 미신 또는 후대의 오염으로 배제하고, 자연철학적 텍스트만을 순수한 도교로 전유하는 패러다임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아울러 이 패러다임이 대중 담론에 그치지 않고 학술적 정전 편찬 과정에서도 부분적으로 재생산됨을 살핀다. 셋째, 이러한 현상의 배후에 놓인 개신교 텍스트주의의 인식 도식을 이론적으로 정식화하고, 그것이 특정한 텍스트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작동하는 조건을 검토함으로써 서구의 도교 연구에 국한되지 않는 전근대적 순환 구조를 비교사적으로 논의한다.

서구의 도교 수용에 관한 연구는 대체로 세 갈래로 구분된다. 첫째, 지성사적 접근이다. 클라크(J. J. Clarke)는 『The Tao of the West』에서 계몽주의 이래 서구 지성사가 도가 사상을 자연신학·낭만주의·생태주의 등 자신의 지적 기획에 맞추어 재전유해 온 과정을 통시적으

2) Wouter J. Hanegraaff, *New Age Religion and Western Culture: Esotericism in the Mirror of Secular Thought* (Leiden: E. J. Brill, 1996).

로 추적하였다.[3] 둘째, 종교학과 중국학 내부에서 제기된 이른바 대중적 서구 도교(Popular Western Taoism, PWT) 비판이다. 콤자티(Louis Komjathy)는 서구의 대중적 도교 담론 상당수가 중국의 역사적 도교 전통과 무관하며, 도교를 '길들이고 무균화하며 왜곡'함으로써 실제 도교인과 도교 공동체의 권위를 박탈한다고 지적하였다. 커클랜드(Russell Kirkland) 역시 서구적 도교 담론에 대한 유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였다.[4] 다만 이러한 비판이 전제하는 '진정한 도교'와 '거짓 도교'의 이분법 자체가 또 다른 본질주의를 반복할 가능성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진정성을 판별하기보다는 어떤 차원이 승인되고 어떤 차원이 배제되는가라는 선택 패턴에 주목한다. 셋째, 번역학과 문학연구의 미시적 접근이다. 판펑화(Penghua Fan)와 위선린(Senlin Yu)은 미첼의『도덕경』판본이 문헌학적 충실성보다는 즉흥적으로 구성된 영적 해석에 가깝다고 평가하였다.[5]

이들 선행연구는 대체로 서구의 도교 왜곡을 문헌학적 오류 또는 문화적 전유의 차원에서 다루어 왔으나, 그 배후의 종교사적 사고 구도로서 종교개혁에서 유래한 텍스트 중심주의를 이론적으로 정식화하지는 않았다. 본 연구는 개신교 텍스트주의와 탈랄 아사드의 담론 전통 개념을 적용하여 기존 분석 방식을 보완하고, 이를 한국 종교사 연구와의 비교 속에서 확장하고자 한다.

---

3) J. J. Clarke, *The Tao of the West: Western Transformations of Taoist Thought*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00).

4) 《Patheos》, Louis Komjathy, "Daoism in America: Fact and Fiction" (https://www.patheos.com/topics/future-of-faith-in-america/eastern-religions/daoism-in-america-louis-komjathy-07-01-2015, 2026. 7. 20. 검색); Russell Kirkland의 비판에 대해서는 《Alternate Homepage of Dr. Louis Komjathy》, Louis Komjathy, "Western Daoist Literature: A Remedial Selection" (https://louiskomjathy.com/wp-content/uploads/2025/09/WesternDaoistLiterature_Komjathy.pdf, 2026. 7. 20. 검색) 참조.

5) Penghua Fan and Senlin Yu, "Stephen Mitchell's Version of the Tao Te Ching: A Spiritual Interpretation," *Literature and Theology* 34:4 (2020), pp.486-493.

Ⅱ. 개신교 텍스트주의와 오리엔탈리즘

1. 세속 영성의 개신교 텍스트주의

16세기 종교개혁의 핵심 원리 가운데 하나인 '오직 성서로'(Sola Scriptura)는 신앙의 궁극적 권위를 교회의 전승이나 사제의 매개가 아니라 성서 텍스트 자체에 귀속시켰다. 이 원리는 신학적으로 신자 개인과 텍스트의 직접적 대면을 정당화했으며, 실천적으로는 성사·성상·성인 숭배와 같은 매개적 의례를 후대에 인간이 덧붙인 요소로 상대화하는 경향을 낳았다. 츠빙글리와 칼뱅의 성상 파괴 운동이 보여주듯, 이러한 상대화는 단순한 신학적 강조점의 이동을 넘어 성상과 제의 공간을 실제로 철거하는 가시적 실천으로 이어졌다. 그럼에도 이러한 경향이 종교개혁 전체에 균질하게 나타난 것은 아니다. 루터파는 세례와 성찬이라는 두 성사를 강력하게 긍정했을 뿐 아니라, 견진·사적 고해·혼인·서품과 같은 관행을 변형된 형태로 유지하였다. 이 점에서 개신교 텍스트주의는 종교개혁 신학 전체의 필연적 귀결이라기보다는 의례를 상대적으로 철저히 상대화한 츠빙글리·칼뱅 계열과 이후의 청교도적 흐름에서 더욱 뚜렷하게 발전한 특정 계열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6]

해리슨(Peter Harrison)은 『'Religion' and the Religions in the English Enlightenment』에서 오늘날 통용되는 종교 개념 자체가 종교개혁 이후 개신교 스콜라주의와 플라톤주의의 결합 속에서 형성되었음을 논증한다.[7] 「'Religion', Revelation, and the Light of Nature:

6) Mickey L. Mattox, "Sacraments in the Lutheran Reformation," in Hans Boersma and Matthew Levering, eds., *The Oxford Handbook of Sacramental Theolog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5), pp.269-282.

7) Peter Harrison, *'Religion' and the Religions in the English Enlightenmen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Introduction' 및 2장(""Religion', Revelation, and the Light of Nature: Protestants and Platonists"), 3장("The Religious Instinct and Priestly Corruptions: Lord Herbert and Deism"); Wilfred Cantwell Smith, *The Meaning and End of Religion* (New York: Macmillan, 1962), pp.15-50.

Protestants and Platonists」 장에서 그는 종교가 점차 신념의 체계로서 명제로 환원 가능한 지식 체계로 재정의되는 과정을 검토한다. 해리슨은 허버트(Lord Herbert)의 이신론을 중심으로, 보편적이고 순수한 '자연 종교'와 사제 계급이 덧붙인 의례적이고 제도적인 타락을 대립시키는 담론이 형성되는 과정을 추적한다. 윌프레드 캔트웰 스미스(Wilfred Cantwell Smith) 역시 『The Meaning and End of Religion』에서 종교를 체계화된 신념의 집합으로 물화하는 관념이 서구 근대의 산물이며, 이러한 관념이 신념 체계보다 실천과 공동체를 중심으로 조직된 비서구 전통을 이해하는 데 오히려 장애가 되어 왔다고 지적한다.

계몽주의 시기에는 순수하고 원형적인 신앙과 후대의 사제 계급과 의례에 의한 타락을 구별하는 해석 도식이 확립되었고, 이는 비서구 종교 전통을 이해하는 기준으로 고착되었다. 서구 영성 이론가들이 노자와 장자의 순수 철학을 후대 도교 교단의 의례적 타락과 구분하는 방식은 이러한 17~18세기 개신교적이고 이신론적인 구도의 20세기적 변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개신교 텍스트주의를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 전제로서 밝힌다. 첫째, 텍스트의 정당화이다. 경전 텍스트는 종교적 진리의 온전한 담지체이며 그 이해에 사제나 교단의 매개가 필수적이지 않다. 둘째, 부가물의 배제이다. 사제, 의례, 성물, 공동체적 실천 등은 텍스트에 대한 후대의 부가물 또는 미신적 왜곡으로 간주된다. 셋째, 신앙의 내면화이다. 신앙은 본질적으로 개인과 텍스트 사이의 사적이고 내면적인 관계이며 공동체와 제도적 소속은 부수적인 것으로 취급된다. 이 전제들은 반드시 유신론적이거나 기독교적인 형태로만 작동하지 않는다. 세속화된 영성 담론에서 '경전은 취하되 교회 형식은 버린다'는 태도로도 구현될 수 있다. 텍스트 정당화는 부가물 배제를, 부가물 배제는 내면화를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상호 결합하여 종교의 사회적 차원을 대체하는 논리적 연쇄 과정을 형성한다.

2. 오리엔탈리즘과 텍스트 중심 담론

사이드(Edward Said)는 『Orientalism』에서 서구가 동양을 자신의 타자로 구성하고 그 표상 권력을 독점해 온 과정을 분석하였다.[8] 사이드에게 오리엔탈리즘은 단순한 편견의 집합이 아니라 동양에 관해 말할 수 있는 것과 말할 수 없는 것을 규정하는 제도화된 담론 체계이다. 그는 이를 명시적 정치 진술로 나타나는 현재적 오리엔탈리즘과 서구 지식 생산의 무의식적 전제로 스며든 잠재적 오리엔탈리즘으로 구분한다. 세속 영성 담론의 도교 서술은 의식적 지배 의도 없이도 표상 권력의 불균형을 재생산한다는 점에서 후자에 가깝다. 이 관점을 종교 담론에 적용하면, 서구 영성 담론이 『도덕경』을 동양의 지혜로 소비하면서도 실제 도교 공동체와 성직자의 해석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현상은 고전적 오리엔탈리즘이 세속화된 형태로 변용된 것으로 읽을 수 있다. 여기서 동양은 더 이상 정치적으로 지배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소비해야 할 자원으로 재정의된다. 이러한 재정의는 표상 권력의 소재 자체를 바꾸지는 못한다. 표상 권력은 여전히 서구 저자에게 귀속되고 정작 전통의 실제 담지자에게는 귀속되지 않는 점에서 권력의 비대칭은 형태를 바꾸어 지속될 뿐이다.

아사드(Talal Asad)는 「The Idea of an Anthropology of Islam」에서 이슬람을 하나의 본질로 환원하는 시도를 비판한다. 그는 이슬람에 대해 특정 실천을 수행하는 방법을 둘러싸고 전통 내부에서 지속되는 논쟁과 해석의 연쇄와 같은 역사적으로 변화하는 담론 전통으로 파악할 것을 제안한다. 아울러 『Genealogies of Religion』 제1부의 「The Construction of Religion as an Anthropological Category」에서 기어츠(Clifford Geertz)의 상징체계론을 비롯하여 종교 일반을 초역사적이고 보편적인 범주로 정의하려는 인류학적 시도가 근대 서구의 개신

8) Edward W. Said, Orientalism (New York: Pantheon Books, 1978), pp.1-28, 201-225.

교적 전제를 무의식적으로 반영한다고 비판한다.[9] 아사드의 관점에서 중요한 질문은 누가 올바른 실천을 판정할 권위를 부여받는가이다. 이러한 권위는 텍스트를 둘러싼 훈육과 교육 제도에 해당되는 신학교, 사승 관계, 교단 조직을 통해 재생산된다.

이 개념을 도교 연구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은 재해석이 가능하다. 도교를 고정된 텍스트적 본질이 아니라 재초 의례를 둘러싼 도사들의 해석 논쟁, 내단 수련의 사승 관계, 사당 공동체의 실천 규범이 역사적으로 축적되어 형성된 담론 전통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사드 자신의 논의를 이 사례에 적용하면, 도교라는 담론 전통의 진정성은 고정된 텍스트 원형과의 일치 여부가 아니라 올바른 실천을 둘러싼 논쟁의 장에 도교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참여하는가에 의해 판단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서구 영성 담론이 도교라는 담론 전통에서 텍스트만을 추출하고 나머지 담론 층위를 지워버리는 행위는 살아 있는 논쟁의 장에서 도교라는 담론 전통을 분리하여 박제화하는 인식론적 오류에 해당한다. 그 결과 도교 내부의 훈육 제도와 사승 관계를 통해 유지되어 온 권위의 연쇄가 단절되고 그 자리에 텍스트 단독의 보편적 지혜라는 허구적 정당성이 들어서게 된다.

개신교 텍스트주의는 무엇을 종교의 본질로 판별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내적 준거로 작동한다. 오리엔탈리즘은 그 준거가 비서구 전통에 투사될 때 발생하는 표상 권력의 불균형을 설명하며, 담론 전통 개념은 그러한 투사 과정에서 지워지는 실천과 권위의 측면을 드러낸다. 세 분석의 측면은 상호 배타적이지 않다. 개신교 텍스트주의라는 내적 준거가 오리엔탈리즘적 표상 권력을 통해 비서구 전통에 투사되고, 그 결과 담론의 전통으로서 지닌 살아 있는 논쟁의 측면이 삭제된다는

9) Talal Asad, "The Idea of an Anthropology of Islam," *Occasional Papers Series* (Washington, D.C.: Center for Contemporary Arab Studies, Georgetown University, 1986), pp.1-22; Talal Asad, "The Construction of Religion as an Anthropological Category," in *Genealogies of Religion: Discipline and Reasons of Power in Christianity and Islam*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3), pp.27-54.

인과적 연결 속에서 설명력을 갖게 된다. 따라서 어떤 텍스트의 대중적 수용을 평가할 때에는 번역의 정확성 여부만이 아니라, 그 수용이 텍스트를 둘러싼 해석 공동체, 의례, 제도를 함께 서술하는지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 절차는 서구가 비서구 전통을 다룰 때에만 작동하지 않고 개항기 한국의 사례에서 보듯 개신교 선교가 전개된 여러 지역에서 유사하게 반복될 수 있다.

Ⅲ. 성서화된 『도덕경』 해석과 도교의 주변화

1. 『도덕경』의 베스트셀러 계보

서구의 도가 사상 수용은 17~18세기 예수회 선교사들의 보고와 초기 번역에서 출발하여, 계몽주의기의 자연신학적 해석, 19세기 낭만주의의 신비주의적 해석, 20세기 후반 생태주의와 반문화 운동의 결합을 거치며 각 시대의 지적 필요에 따라 굴절되어 왔다. 클라크가 정리하듯, 라이프니츠는 예수회 선교사 요아힘 부베가 전한 복희 64괘의 배열에서 자신이 이미 구상해 온 이진 산술과의 구조적 상응을 발견하였다. 그는 이를 중국 고대의 상징체계가 보편적 계산과 이성의 질서에 접속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하였다.[10] 유사한 형태로 헉슬리는 도교의 사유를 영원철학의 한 정식으로 명시하고, 『장자』를 초월적 영적 근거가 모든 존재 안에 내재한다는 명제를 보여주는 동아시아적 사례로 제시하였다.[11] 이러한 경향의 공통적인 특징은 서구가 도가 텍스트에서 자신이 이미 지닌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문제의

10) J. J. Clarke, *Oriental Enlightenment* (London: Routledge, 1997), pp.37–53.

11) Aldous Huxley, *The Perennial Philosophy* (Toronto: McClelland & Stewart, 2014), pp.10–11 (Chapter I, “That Art Thou”).

식에 대한 해답을 발견하려 했다는 점이다.『도덕경』의 영어 번역과 해설본은 수백 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단일 텍스트를 중심으로 방대한 재해석 산업이 형성되어 왔음을 보여준다. 20세기 후반 세속 영성 담론은 이 장기적 재구성의 최신 국면이지만, 이전 시기의 담론이 주로 지식인과 신학자 집단 내부에서 전개되었다면, 이 시기에는 대중 출판 시장을 매개로 한 대량 소비의 형태를 띠었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미첼(Stephen Mitchell)의『Tao Te Ching: A New English Version』(1988)은 50만 부 이상이 판매된 서구의 대표적 베스트셀러『도덕경』판본으로 알려져 있다. 미첼은 한 인터뷰에서 자신을 "학자라 하더라도 아마추어(If I'm a scholar, I'm an amateur)"라고 규정한 바 있으며, 고전 중국어를 직접 독해하지 못한 채 기존 영어 번역본을 저본으로 삼아 선불교 수행 경험과 기독교적 어휘를 바탕으로 새로운 판본을 구성하였다.[12] 그의 해설은 도를 설명하면서 신약성서의 어휘와 구문을 반복적으로 차용한다. 이는 그의 작업이 선불교 수행 경험뿐 아니라 유대-기독교 경전 번역가로서의 이력에도 영향을 받았음을 시사한다. 판펑화와 위선린은 이러한 특징을 근거로 미첼의 판본이 학문적으로 충실한 번역이라기보다 즉흥적으로 재구성된 영적 해석에 가깝고, 도가 사상을 선불교나 기독교적 가르침으로 대체함으로써 원전의 사회문화적 맥락으로부터 분리한다고 평가한다.[13]

다이어(Wayne W. Dyer)의『Change Your Thoughts, Change Your Life: Living the Wisdom of the Tao』(2007)는 미첼의 판본보다 한층 적극적인 재맥락화를 수행한다. 자기계발 심리학자인 다이어는『도덕경』81장을 각각 일상에서 실천할 삶의 지침으로 재구성한다. 이 과정에서 도교의 역사적 종교성은 거의 배제되고, 텍스트는 개

12) Stephen Mitchell, *Tao Te Ching: A New English Version* (New York: Harper & Row, 1988); Susan Salter Reynolds, "Sage of the message," *Gulf News* (https://gulfnews.com/entertainment/books/sage-of-the-message-1.41053, 2026. 7. 20. 검색).

13) Penghua Fan and Senlin Yu, 앞의 글, pp.486-493.

인적 성공과 심리적 안정을 위한 처세와 교훈의 집합으로 전환된다.[14] 미첼이 번역이라는 문헌학적 틀을 형식적으로나마 유지하는 것과 달리, 다이어는 그러한 틀 자체를 내려놓고『도덕경』을 심리학적 자기계발서의 범주에 전면적으로 편입한다. 이는 개신교 텍스트주의의 세속화가 진전된 국면으로서 텍스트의 종교적 성격마저 배제한 채 실용적 처세서로 전환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1997년에 출간된 르 귄(Ursula K. Le Guin)의『도덕경』판본은 앞선 두 사례와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드러낸다. 르 귄은 중국어를 전혀 알지 못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자신의 작업을 "번역이 아니라 각색(rendition)"이라고 규정했으며, 그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중국문학 전문가 시턴(J. P. Seaton)과 협업하였다. 그럼에도 골딘(Paul Goldin)과 콤자티는 이 판본을 아마추어적이고 딜레탕트적인 작업으로 비판하였다.[15] 르 귄 사례의 이론적 함의는 그가 미첼과 다이어와 달리 작업의 비학문성을 솔직히 인정했음에도 결과적으로는 도교의 의례적이고 공동체적인 차원을 주변화하는 동일한 구조적 효과를 드러낸 점이다. 이는 개신교 텍스트주의가 개별 저자의 성실성이나 자기 인식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 구조와 장르 관습에 내장된 접근 방식임을 시사한다.

이들의 수사적 관습은 세 단계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르 귄처럼 언어적·문헌학적 소양의 한계를 인정하거나 다이어처럼 이를 전면에 드러내지 않거나 미첼처럼 모호하게 처리하는 방식은 서로 다르지만, 어느 경우에도 학문적 권위보다 영적 체험이나 문학적 감수성이 진정한 이해의 조건이라는 주장으로 정당화된다. 둘째, 이러한 정당화는 중국학자나 도교 전문가의 문헌학적 개입을 부차화하고, 비전문가의 직관을 도 자체와의 직접적 교감으로 격상시킨다. 셋째, 결과물은 번역 또는 판본이라는 표제를 통해 원전에 대한 권위를 차용하면서도,

14) Wayne W. Dyer, *Change Your Thoughts, Change Your Life: Living the Wisdom of the Tao* (Carlsbad, CA: Hay House, 2007), pp.1-15.

15) Mark Saltveit, "Ursula K. Le Guin: A Remembrance," *Journal of Daoist Studies* 13 (2020), pp.223-227, "This is a rendition, not a translation. I do not know any Chinese."

내용상으로는 저자의 영적이며 문학적인 취향을 반영하는 산물이 된다. 이 구조는 사제의 매개 없이 신자 개인이 성서와 직접 대면하여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는 종교개혁의 논리와 형식상 유사하다.

이들 서문에서 반복되는 관점은 노자와 장자로 대표되는 초기 도가 철학과 후대에 형성된 도교의 의례・교단・연단술・신선 숭배를 구분하고, 후자를 철학의 타락 또는 민간신앙과의 습합으로 인한 오염으로 처리하는 데 있다. 콘(Livia Kohn)이 지적하듯 이러한 도가와 도교의 이분법 자체는 서구 중국학 초기의 산물이며, 중국의 종교적 실천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인위적 구획이다.[16] 이는 앞서 살펴본 해리슨의 종교적 본능과 사제의 타락이라는 계몽주의적 구도와도 구조적으로 상응한다.

2. 의례 전통으로 주변화된 도교

역사적으로 도교는 후한대 오두미도(五斗米道)에서 출발하여 정일도와 전진도 등의 교단으로 제도화되었고, 재초・부적・내단 수련과 같은 의례적이고 신체적인 실천 체계를 발전시켜 왔다. 정일도가 재가(在家) 도사와 세습적 사승 관계를 중심으로 지역 공동체의 재초 의례를 주관해 온 반면, 금대(金代) 이후 성립한 전진도는 출가 수행자 중심의 총림 제도와 내단 수련을 중시하였다. 이처럼 도교 내부에는 상이한 제도적이고 의례적인 갈래가 공존해 왔으며, 그 실천은 텍스트 독해로 환원될 수 없는 사승 관계, 의례 절차, 공동체 규범을 필수적으로 수반한다. 그럼에도 세속적『도덕경』담론에서 이러한 차원은 거의 지워지고, 도교는 서구에서 유통되는 81장의 잠언집으로 축소된다. 이러한 교단사와 의례사를 원사료 차원에서 확인할 수 있는 표준적 참고자료로는 명대『정통도장』을 체계적으로 해제한 슈퍼・베렐렌의 도장 해제서가 있으며, 본 연구의 논의는 이러한 1차 문헌 정리 작업

16) Livia Kohn, *Daoism and Chinese Culture* (Cambridge, MA: Three Pines Press, 2001), pp.1-20.

에 기반한 2차 연구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밝힌다.[17]

콤자티는 서구의 대중 도교 담론이 도교를 자기 방식으로 왜곡함으로써 실제 도교인과 도교 공동체의 권위를 박탈한다고 비판한다.[18] 이 비판의 핵심은 이러한 주변화가 단순한 문화적 오해가 아니라 해석 권위의 재배치를 수반한다는 데 있다. 원전에 대한 최종 해석권은 도교 내부의 도사, 사승 계보, 교단에서 서구의 번역가와 자기계발 강사에게로 이전되고, 그 과정에서 무엇이 '진정한 도교'인가를 판정할 권한마저 서구의 세속 영성 시장으로 이전된다. 이러한 패턴은 대중적 베스트셀러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하버드대학교의 도교 연구자 로브슨(James Robson)이 편집한 『The Norton Anthology of World Religions: Daoism』(2015)은 갑골 점복 문헌부터 20세기 서구의 해석까지 150여 종의 문헌을 포괄하는 학술적 정전이지만, 수록 목록에는 와일드(Oscar Wilde)와 르 귄의 글도 '20세기 서구의 도교 해석' 항목으로 포함되어 있다.[19] 콤자티는 이러한 편집이 대중적 서구 도교를 학술적 정전 안에 편입함으로써 사실상 그 일부를 정당화한다고 비판한다.

이 사례는 개신교 텍스트주의에 의한 주변화가 대중 출판 시장의 상업 논리만으로 설명될 수 없으며, 상대적으로 엄격한 검증 절차를 거치는 학술적 정전 편찬에서도 텍스트로 남은 것을 도교로 승인하는 유사한 논리가 작동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담론 전통의 주변화

17) Kristofer Schipper and Franciscus Verellen, eds., *The Taoist Canon: A Historical Companion to the Daozang*, 3 vols.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4).

18) 《Patheos》, Louis Komjathy, "Daoism in America: Fact and Fiction" (https://www.patheos.com/topics/future-of-faith-in-america/eastern-religions/daoism-in-america-louis-komjathy-07-01-2015, 2026. 7. 20. 검색).

19) James Robson, ed., *The Norton Anthology of World Religions: Daoism* (New York: W. W. Norton, 2015); 수록 구성에 대해서는 《The Ho Center for Buddhist Studies, Stanford University》, "The Norton Anthology of World Religions: Daoism" (https://buddhiststudies.stanford.edu/publications/norton-anthology-world-religions-daoism, 2026. 7. 20. 검색); 《Alternate Homepage of Dr. Louis Komjathy》, Louis Komjathy, "Western Daoist Literature: A Remedial Selection" (https://louiskomjathy.com/wp-content/uploads/2025/09/WesternDaoistLiterature_Komjathy.pdf, 2026. 7. 20. 검색).

가 개별 저자의 무지나 상업적 의도로 환원되지 않는 구조적 인식론의 문제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권위의 이전은 아사드가 말한 담론 전통의 작동 방식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전개된다. 담론 전통 내부에서는 올바른 실천을 둘러싼 논쟁이 전통 내부의 권위 있는 행위자들 사이에서 지속되지만, PWT에서는 그러한 논쟁이 애초에 배제된 채 소비자 시장의 선호에 따라 도교 전통 전체가 재단된다.

콤자티, 커클랜드, 콘 등 도교 전문 연구자들의 비판적 개입은 이러한 주변화에 맞서는 학문적 비판 담론을 구성한다. 이들이 공통으로 요구하는 것은 도교를 다룰 때 텍스트 번역에 그치지 않고 사승 계보, 교단 조직, 의례 절차, 현대 중국과 대만의 살아 있는 도교 공동체를 함께 서술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요구는 요약식 잠언과 개인주의적 텍스트를 선호하는 대중 시장의 경향과 충돌한다. 이 충돌이 해소되지 않는 한 학술적 비판은 대중적 인식을 근본적으로 환기시키는 데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재맥락화의 최소 조건은 텍스트뿐 아니라 해석 공동체, 사승 관계, 의례 실천을 함께 서술하는 데 있다. 이는 학술적 엄밀성이나 종교학적 해석의 문제만이 아니라 해석 권위를 누가 보유하는가의 문제이다. 텍스트만 남기고 나머지를 배제하는 관행이 지속되는 한 그 권위는 서구 세속 시장에 계속 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Ⅳ. 개신교적 프레임의 전지구적 재생

1. 경전 중심과 의례 비하의 이분법

앞서 논의했듯 세속 영성 담론이 도교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텍스트는 취하고 의례, 교단, 성직자는 배제하는 선택은 종교개혁의 '오직 성

서로' 원칙이 세속화된 형태로 재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선택은 명시적 신학 의도 없이 종교적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운 보편적 지혜의 추구라는 세속적 자기 정당화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는 개신교 텍스트주의가 특정 종파의 입장을 넘어 종교 일반에 대한 상식으로 정착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현상은 종교를 정의하려는 시도 자체가 근대 서구의 담론적 산물이라는 아사드의 명제와도 상응한다. 해리슨이 분석하듯 종교개혁 신학에서 의례에 대한 비판과 회의는 그것이 참된 내적 신앙을 외적·기계적 형식으로 대체할 위험이 있다는 논리에 근거했다.[20] 이 논리는 18세기 이신론자들에 의해 종교적 본능과 사제의 타락을 구별하는 세속화된 도식으로 재정립되었고, 이후 19세기 자유주의 신학과 20세기 '영성 대 종교' 담론을 거치며 더욱 보편화되었다.

오늘날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는 않다'(SBNR)는 입장이 '신앙은 있으나 의례·교단·성직자 등의 제도는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로 통용되는 것은 이러한 관점의 연장선상에 있다. 세속적『도덕경』해석이 도교의 의례적 차원을 불필요한 형식으로 취급하는 방식 역시 같은 맥락에 놓인다. 이 분석은『도덕경』이 왜 '종교 아닌 영성'의 아이콘으로 선호되는지를 설명해 준다.『도덕경』은 분량이 짧아 경전 전체와의 직접적 대면이라는 개신교적 이상을 손쉽게 구현할 수 있고, 인격신에 대한 언급이 상대적으로 적어 무신론적 영성과 접합하기 쉬우며, 81장이라는 구조가 자기계발 담론의 일일 묵상집 형식과도 잘 결합하기 때문이다.

이 점은 다른 경전과 비교할 때 더욱 분명해진다. 힌두교의『바가바드기타』는 서구에서 다수의 대중적 번역을 낳았으나, 크리슈나라는 인격신과 신자의 헌신적 관계(bhakti)를 명시적으로 서술하기 때문에『도덕경』만큼 무신론적·탈종교적 지혜로 재구성되기 어렵다. 이슬람의『쿠란』역시 예배 의무(살라트)와 공동체적 법규를 불가분하게 규정하므로 텍스트와 실천을 분리하려는 시도는 텍스트 내부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다. 공자의『논어』는 인격신에 관한 언급이 희박하다는 점에서『도덕경』과

20) Peter Harrison, 앞의 책, 제3장 "The Religious Instinct and Priestly Corruptions" 참조.

유사하지만, 구체적인 의례 행위와 사회적 관계의 규범을 핵심 주제로 삼기 때문에 텍스트 읽기 자체가 의례에 관한 논의로 이어진다.『논어』는 무신론적이고 짧으며 잠언적인 형식이라는 조건 일부를 충족하지만, 의례를 텍스트 내부에서 적극적으로 긍정하기 때문에『도덕경』처럼 철저히 탈의례화된 잠언록으로 소비되지는 않는다. 반면『도덕경』은 인격신 개념이 희박하고 비인격적 원리인 '도'를 중심에 두면서도 의례를 적극적으로 옹호하지 않기에 개신교 텍스트주의의 세속화된 형태로 전유되기 쉽다. 이는 개신교 텍스트주의가 모든 경전에 동일한 강도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의 형식적이고 신학적인 특성과의 정합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동함을 보여준다.

2. 한국의 종교와 미신의 위계

이러한 개신교 텍스트주의의 도식은 서구의 도교 접근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장석만은 개항기 한국 사회에서 종교라는 근대적 개념이 형성되는 과정을 분석하면서, 서구 개신교 선교사들의 신념 체계 중심 종교 관념이 무속과 민간신앙을 미신으로 주변화하는 편견을 결정적으로 고착시켰음을 밝힌 바 있다.[21] 류대영은 1890~1940년 사이 한국에서 발간된 영문 잡지『The Korea Review』와『The Korea Mission Field』를 분석하여, 서구 선교사와 저술가들이 한국 종교 지형을 유교와 불교처럼 경전을 지닌 타락한 고등 종교와 경전 없는 사적 미신으로서의 무속으로 위계화해 서술했음을 보여준다.[22]

이들 연구를 종합하면, 서구 선교사들이 한국의 종교 지형을 서술할 때 사용한 '경전화된 고등 종교'와 '경전 없는 미신'의 위계는 20세기 후반 서구 영성가들이 도교를 서술할 때 사용한 철학적 원전과

21) 장석만,「개항기 한국사회의 "종교" 개념 형성에 관한 연구」(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2), pp.1-15, 120-145.

22) 류대영,「국내 발간 영문 잡지를 통해서 본 서구인의 한국 종교 이해, 1890~1940」,『한국기독교와 역사』26 (2007), pp.141-176.

의례적·민간신앙적 오염의 위계와 형식적으로 상응한다. 두 사례 모두에서 판별 기준은 경전 텍스트의 유무와 그것과 직접 대면할 가능성이며, 텍스트로 환원되지 않는 실천 중심의 한국 무속과 중국의 민간 도교 의례 전통은 종교 범주의 주변부로 밀려난다. 한국의 경우 유교와 불교가 경전을 지녔다는 이유로 무속보다 상위에 놓이면서도 여전히 타락한 것으로 폄하된 반면, 도교의 경우에는 『도덕경』과 도교 교단의 종교 전통 자체가 분리되어 전자만 철학으로 격상되고 후자는 미신으로 격하되었다는 차이가 있다. 이는 개신교 텍스트주의가 대상 전통의 내부 구성에 따라 위계화와 단절이라는 상이한 전략으로 구현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비교는 한국 신종교 연구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동학과 증산 계열을 포함한 한국의 근대 신종교 전통 역시 서구 학계와 대중 담론에서 표상될 때, 『동경대전』·『전경』 등 경전으로 환원 가능한 교리 측면은 상대적으로 진지하게 다루어지는 반면 의례·수행·공동체 조직 원리는 토착 무속과의 습합 또는 유사 민간신앙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서구 학계의 한국 신종교 수용을 대상으로 한 개별 실증 연구에 근거한 서술이 아니라, 본 연구가 도교 사례에서 도출한 '텍스트는 승인하되 의례와 공동체는 지운다'는 주변화 도식을 한국 신종교의 대외적 표상 가능성에 유비적으로 적용해 본 시론적 가설임을 밝혀둔다. 이 가설이 실제 자료에 비추어 타당한지는 향후 비교연구를 통해 실증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과제로 남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개신교 텍스트주의는 단일한 서구–도교 관계의 우연적 산물이 아니라, 근대 세계체제 속에서 개신교 선교와 세속 학문·시장이 결합하며 반복적으로 지속해 온 전지구적 해석 도식으로 이해될 수 있다. 선교, 출판 시장, 학술 정전은 서로 다른 제도적 경로이지만, 텍스트 여부를 판별의 중심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하나의 흐름을 구성한다.

이 흐름은 19세기 후반 신지학 운동(Theosophy)에서도 선구적 형태로 확인된다. 블라바츠키(Helena Blavatsky)가 주도한 신지학회는

힌두교・불교・조로아스터교 등 다양한 아시아 전통에서 의례와 교단의 구체적 맥락을 걷어내고, 그 배후에 있다고 상정한 단일한 고대 지혜만을 발췌하고 종합하여 서구 독자에게 제시하였다.[23] 이는 20세기 후반 세속 영성 담론이 『도덕경』에 수행한 재구성과 방법론적으로 유사하며, 여러 전통에서 텍스트적 요소만을 추출하고 그 담지 공동체를 배경으로 지워버리는 절차를 한 세기 앞서 보여준다. 이러한 계보는 개신교 텍스트주의가 특정 시기나 특정 텍스트에 한정된 우연이 아니라, 근대 서구의 종교 이해 방식에 반복적으로 내장되어 온 관습임을 뒷받침한다.

3. 현대 종교학의 세계종교 담론의 문제

서구의 동양 사상과 종교 이해에 자기 투사적 기독교 해석이 전제되어 있다는 비판을 이해하려면, 1990년대 이후 꾸준히 제기된 종교학 내부의 자기비판적 논의를 살필 필요가 있다. 마수자와(Tomoko Masuzawa)는 『The Invention of World Religions』에서 오늘날 종교학 개론이 전제하는 '세계 5대 종교' 또는 '세계종교'라는 분류가 19세기 유럽의 비교언어학과 초기 종교학이 만들어 낸 역사적 구성물임을 지적한다.[24] 뮐러(Friedrich Max Müller)의 『Sacred Books of the East』 기획에서 보이듯, 경전 텍스트를 지닌 전통만을 고등 종교로 선별하는 문헌 중심적 편향은 서구의 동양 종교 이해에 일찍부터 내장되어 있었다. 마수자와는 이러한 세계종교 분류가 트뢸치(Ernst

23) Wouter J. Hanegraaff, "Western Esotericism and the Orient in the First Theosophical Society," in Hans Martin Krämer and Julian Strube, eds., *Theosophy across Boundaries: Transcultural and Interdisciplinary Perspectives on a Modern Esoteric Movement*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2020), pp.30-31.

24) Tomoko Masuzawa, *The Invention of World Religions: Or, How European Universalism Was Preserved in the Language of Pluralism*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5), 'Introduction' 및 1장("World Religions in the Academy Today").

Troeltsch)에게서 확인되는 개신교적 보편주의가 세속화된 다원주의의 언어로 자신을 재현한 결과라고 분석한다.

매커천(Russell T. McCutcheon)은 『Manufacturing Religion』에서 종교를 그 자체로 고유하고(sui generis) 환원 불가능한 현상으로 간주하며, 오직 특별한 훈련을 받은 종교학자만이 그 내적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는 통념을 비판한다. 그에 따르면 이러한 '수이 제네리스 종교' 담론은 대학의 세계종교 개론 교재에서 널리 채택되며, 종교를 역사와 정치로부터 분리된 탈역사적·초정치적 영역으로 격상함으로써 종교 연구를 학문적 검증으로부터 면제된 신성불가침의 영역으로 만든다.[25] 매커천은 이 담론이 표면적으로 가치중립적 학문성을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개신교 자유주의 신학에서 유래한 종교 이해를 학문의 중립적 전제인 양 제시하는 이데올로기적 효과를 지닌다고 비판한다.

스미스(Jonathan Z. Smith) 역시 「Religion, Religions, Religious」에서 종교란 특정 공동체가 스스로를 지칭해 온 토착적 범주가 아니라, 16세기 이래 유럽의 관찰자들이 다양한 문화 현상을 분류하기 위해 고안한 이차적이고 학문적인 구성물임을 강조한다.[26] 그에게 종교는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며 그 구성 방식은 이를 만드는 관찰자의 분류 관심을 반영한다. 이러한 논의를 종합하면, 텍스트만을 종교의 진정한 내용으로 승인하는 서구의 도교 이해는 개별 저자의 특이한 습관이 아니라 종교학이라는 학문 분과의 형성 과정에 새겨진 문헌 중심적 개신교 편향이 대중적으로 발현된 사례로 이해할 수 있다. 미첼·다이어·르 귄의 서문에서 드러나는 수사는 특정 개인의 독창적 왜곡이라기보다, 세계종교 분류와 수이 제네리스 종교 담론이 19세기 이후 형성해 온 인식론적 조건의 산물이다.

---

25) Russell T. McCutcheon, *Manufacturing Religion: The Discourse on Sui Generis Religion and the Politics of Nostalgia*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7), 'Introduction' 및 결론부 참조.

26) Jonathan Z. Smith, "Religion, Religions, Religious," in Mark C. Taylor, ed., *Critical Terms for Religious Studies*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8), pp.269–284.

이와 유사한 문제의식은 불교학 내부에서도 확인된다. 로페즈(Donald S. Lopez Jr.)가 편집한『Curators of the Buddha: The Study of Buddhism under Colonialism』에 수록된 연구들은, 19~20세기 서구의 불교학이 경전에 기반한 이른바 경전 불교(textual Buddhism)만을 진정한 불교로 승인하고 아시아 각지에서 실제로 이루어져 온 의례 중심의 살아 있는 불교 실천을 후대의 타락이나 민간신앙적 변질로 취급해 온 과정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27] 이러한 논의는 본 연구가 도교 수용 사례에서 확인한 '텍스트는 승인하되 실천은 지운다'는 도식이 불교 연구라는 인접 분과에서도 유사하게 반복되어 왔음을 보여주며, 개신교 텍스트주의가 특정 종교전통에 국한되지 않는 학문 분과 횡단적 현상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자기비판적 종교학의 성찰 역시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수는 없다. 이들 논의는 대체로 세계종교 개념과 수이 제네리스 종교 담론을 채택해 온 북미 대학의 종교학 고등교육 제도를 주요 대상으로 삼는다. 따라서 북미권 학문 경향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대중 출판 시장이나 비서구 학계에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실제로 마수자와의 저작에 대해서도 19세기 유럽 종교학사에 관한 정교한 분석과 현대 종교학 전반에 대한 포괄적 비판 사이에 논증의 밀도 차이가 있다는 평가가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한계를 고려할 때 본 연구의 관심은 특정 학문 제도에 대한 단정적 평가가 아니라, 종교와 세계종교 범주 자체가 역사적으로 구성되었다는 계보학적 성찰에 있다. 이 성찰을 종교학 내부의 논쟁에 한정하지 않고, 대중 출판 시장에서 유통되는 서구 세속 영성 출판물이 '동양의 지혜'를 다루는 방식으로 확장하는 것이 본 연구의 의도이다.

---

27) Donald S. Lopez Jr., ed., *Curators of the Buddha: The Study of Buddhism under Colonialism*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5).

Ⅴ. 결론

본 연구는 서구 영성 담론의『도덕경』수용이 단순한 문화적 단순화를 넘어 종교개혁에서 유래한 텍스트 중심주의가 세속화된 형태로 작동하는 해석 도식임을 논의하였다. 이를 개신교 텍스트주의로 개념화하고, 미첼·다이어·르 귄의 작업을 사례로 검토함으로써 이 도식이 오리엔탈리즘적 표상 권력과 결합하는 양상을 밝히고자 하였다. 그 결과 도교를 동양의 신비로운 지혜로 상품화하면서 해석 권위는 서구의 세속 저자에게 귀속시키는 오리엔탈리즘이 작동하며, 도교라는 살아 있는 담론 전통에서 의례·교단·공동체의 층위가 배제된 채 텍스트라는 고착된 형식만이 종교 전통으로 승인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주변화는 콤자티와 커클랜드의 논의가 전제하는 진정한 도교와 거짓 도교의 단순한 이분법만으로 해소되기 어렵다. 중요한 것은 어떤 텍스트가 승인되고 어떤 의례와 교단이 배제되는가라는 선택의 패턴이며 그 패턴을 반복시키는 문화적 도식이다. 이러한 주변화가 대중적 베스트셀러에만 한정되지 않고 학술적 정전 편찬 과정에서도 제한적으로 재생산될 수 있음을 논의를 통해 확인하였다. 이 도식이 개항기 한국에서 무속을 미신으로 격하하는 과정에서는 위계화와 단절이라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전개되었음을 검토함으로써, 문제의 구조적 반복 가능성을 부각하고자 하였다.

이 분석의 목적은 서구 영성 담론이 종교로부터의 자유라는 자기 이해의 이면에 특정 종파적 담론을 내포하고 있음을 성찰하는 데 있다. 동시에 도교 연구와 동아시아 종교 연구가 텍스트 중심주의를 넘어, 의례와 공동체의 수행 전통을 종교의 부수적 요소가 아니라 담론 전통의 필수 구성 요소로 회복해야 함을 제안한다. 이는 도교 연구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한국의 신종교와 민중종교 전통이 서구 학계와 대중 담론에서 경전·의례·공동체 중 어느 차원을 중심으로 표상되

고 정전화되는가의 문제와도 직결된다. 향후의 연구는 본 논의에서 시론적으로 제시한 비교의 구도를 한국 신종교의 서구적 수용 사례로 확장하여, 개신교 텍스트주의가 도교뿐 아니라 한국 종교 전통의 대외적 표상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실증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 이는 경전과 의례를 본질과 부속물로 나누는 관습을 비판하고 하나의 전통을 실제로 살아 움직여 온 실천의 총체로 파악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었다. 본론에서 검토한 세 사례가 영어권 베스트셀러에 한정되어 있어 프랑스어와 독일어권의 유사한 대중 수용, 일본과 대만 등 동아시아 내부의 대중적 도교 담론은 다루지 못하였다. 본 연구가 제시한 위계화와 단절이라는 두 전략의 구분이 다른 종교 전통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는 후속 연구에서 검증할 가설로 남는다. 이러한 제한점을 넘어서 개신교 텍스트주의, 오리엔탈리즘, 담론 전통 등을 결합한 분석 방식이 도교 연구를 넘어 더 넓은 비교종교학적 연구로 확장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류대영, 「국내 발간 영문 잡지를 통해서 본 서구인의 한국 종교 이해, 1890~1940」, 『한국기독교와 역사』 26, 2007. http://uci.or.kr/G704-001259.2007..26.005

장석만, 「개항기 한국사회의 "종교" 개념 형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2.

Asad, Talal, "The Idea of an Anthropology of Islam," *Occasional Papers Series*, Washington, D.C.: Center for Contemporary Arab Studies, Georgetown University, 1986.

_____, "The Construction of Religion as an Anthropological Category," in *Genealogies of Religion: Discipline and Reasons of Power in Christianity and Islam*,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3. https://doi.org/10.1353/book.16014

Clarke, John James, *Oriental Enlightenment: The Encounter between Asian and Western Thought*, New York: Routledge, 1997. https://doi.org/10.4324/9780203004388

_____, *The Tao of the West: Western Transformations of Taoist Thought*, New York: Routledge, 2000. https://doi.org/10.4324/9780203132340

Dyer, Wayne W., *Change Your Thoughts, Change Your Life: Living the Wisdom of the Tao*, Carlsbad, CA: Hay House, 2007.

Fan, Penghua and Yu, Senlin, "Stephen Mitchell's Version of the Tao Te Ching: A Spiritual Interpretation," *Literature and Theology* 34:4, 2020. https://doi.org/10.1093/litthe/fraa023

Fuller, Robert C., *Spiritual, But Not Religious: Understanding Unchurched America*,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https://doi.org/10.1093/0195146808.001.0001

Hanegraaff, Wouter J., *New Age Religion and Western Culture: Esotericism in the Mirror of Secular Thought*, Leiden: E. J. Brill, 1996. https://doi.org/10.1163/9789004378933

_____, "Western Esotericism and the Orient in the First Theosophical Society," in Hans Martin Krämer and Julian Strube, eds., *Theosophy across Boundaries: Transcultural and Interdisciplinary Perspectives on a Modern Esoteric Movement*,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2020. https://doi.org/10.1515/9781438480435-003

Harrison, Peter, *'Religion' and the Religions in the English Enlightenmen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https://doi.org/10.1017/CBO9780511627972

Huxley, Aldous, *The Perennial Philosophy*, Toronto: McClelland & Stewart, 2014.

Kohn, Livia, *Daoism and Chinese Culture*, Cambridge, MA: Three Pines Press, 2001.

Lopez, Donald S., Jr., ed., *Curators of the Buddha: The Study of Buddhism under Colonialism*,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5.

Masuzawa, Tomoko, *The Invention of World Religions: Or, How European Universalism Was Preserved in the Language of Pluralism*,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5. https://doi.org/10.7208/chicago/9780226922621.001.0001

Mattox, Mickey L., "Sacraments in the Lutheran Reformation," in Hans Boersma and Matthew Levering, eds., *The Oxford Handbook of Sacramental Theolog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5. https://doi.org/10.1093/oxfordhb/9780199659067.013.32

McCutcheon, Russell T., *Manufacturing Religion: The Discourse on Sui Generis Religion and the Politics of Nostalgia*,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7. https://doi.org/10.1093/oso/9780195105032.001.0001

Mitchell, Stephen, *Tao Te Ching: A New English Version*, New York: Harper & Row, 1988.

Robson, James, ed., *The Norton Anthology of World Religions: Daoism*, New York: W. W. Norton, 2015.

Said, Edward W., *Orientalism*, New York: Pantheon Books, 1978.

Saltveit, Mark, "Ursula K. Le Guin: A Remembrance," *Journal of Daoist Studies* 13, 2020.
https://doi.org/10.1353/dao.2020.0011

Schipper, Kristofer and Verellen, Franciscus, eds., *The Taoist Canon: A Historical Companion to the Daozang*,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4.
https://doi.org/10.7208/chicago/9780226721064.001.0001

Smith, Jonathan Z., "Religion, Religions, Religious," in Mark C. Taylor, ed., *Critical Terms for Religious Studies*,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8.
https://doi.org/10.7208/chicago/9780226791739.001.0001

Smith, Wilfred Cantwell, *The Meaning and End of Religion*, New York: Macmillan, 1962.

Reynolds, Susan Salter, "Sage of the message," *Gulf News*, 2019. 7. 23.

《Alternate Homepage of Dr. Louis Komjathy》
https://louiskomjathy.com

《Patheos》 https://www.patheos.com

《The Ho Center for Buddhist Studies, Stanford University》
https://buddhiststudies.stanford.edu

■ Abstract

Western Spiritual Discourse's Appropriation of the Daodejing and Protestant Textualism

Park Beom-seok
Lecturer, Department of Religious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critically examines Western spiritual discourse on the *Daodejing* (道德經) through the concept of Protestant textualism. Widely circulated Western translations and commentaries have represented the *Daodejing* as a timeless work of pure philosophy. In the process, however, the practical and communal dimensions that have historically constituted Daoism—including rituals, temples, religious orders, and practices for immortality—have often been treated as superstitious accretions and excluded from view. The study argues that this selective appropriation rests on a secularized form of a theological framework inherited from the Protestant Reformation, particularly scripturalism and the devaluation of ritual traditions. Drawing on the critique of Orientalism and Talal Asad's concept of discursive tradition, it analyzes how this spiritual discourse divides East Asian religious traditions into text and practice, recognizing only the former as authentic. It further argues that this process is reproduced not only in popular publications but also, albeit in

limited ways, in scholarly canon formation. A comparison with late nineteenth-century Korea shows a structural affinity with the manner in which Western missionaries hierarchized shamanism as superstition while classifying Confucianism and Buddhism as scripturalized religions. The study concludes that the decontextualized appropriation of Daoism is an exercise of power that reconfigures the boundary between religion and the secular, and it calls for an understanding of Daoism as a discursive tradition that exceeds text-centered approaches.

Keywords: *Daodejing*, Daoism, Protestant Textualism, Orientalism, Discursive Tradition, Secular Spirituality

논문투고일 : 2026.07.25. 심사완료일 : 2026.09.01. 게재확정일 : 2026.09.28.